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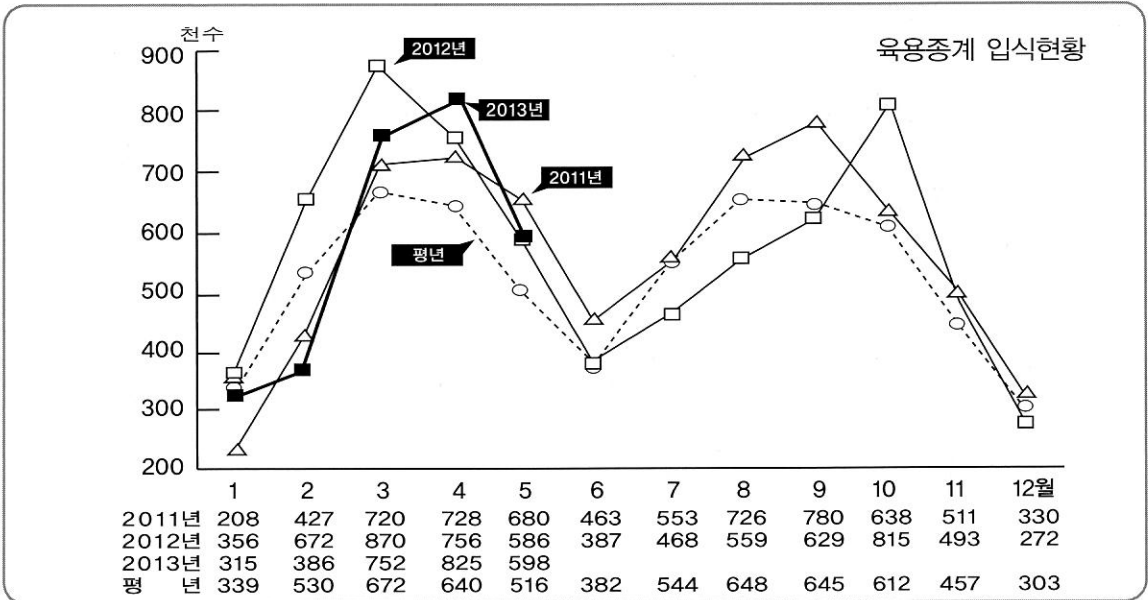


7월 닭고기 수급 전망

1. 육용종계 입식현황

● 2013년 5월 육용종계 입식수수 전년동기대비 2.0% 증가

- 2013년 5월 육용종계 입식수수는 59만8천수로 전년동기(58만6천수) 대비 2.0% 증가했으며, 이는 평년수준(51만6천수) 대비 13.6% 증가한 수준이다(4월 82만5천수 대비 27.5% 감소).
- 육용종계 입식수수는 5월까지의 전년동기대비 11.3% 감소했으나 4월부터는 다시 종계 입식수수가 전년동기 대비 증가가 되고 있어서 생산에 본격적으로 가담하는 2013년 4/4분기 이후에는 병아리 생산잠재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계 사육수수는 전년동기대비 5.6% 증가한 735만수로 추정되고 있는데 북경기를 노린 노계도태지연 및 환우계군의 영향으로 인해 종계 사육수수가 전년대비 늘어나고 지난해 하반기에 입식된 계군 생산 가담 확대와 생산성 개선으로 성계의 사육수수는 전년대비 2.3% 증가로 산란계군의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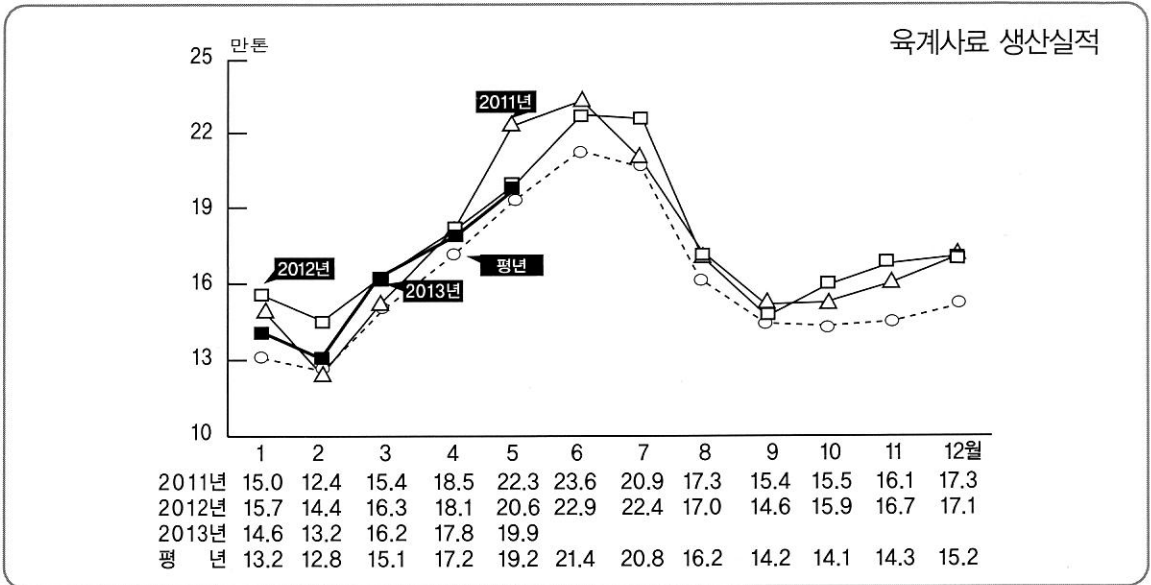
※주 : 평년은 2008~2012년의 입식수수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주자료 : 대한양계협회

2. 배합사료 생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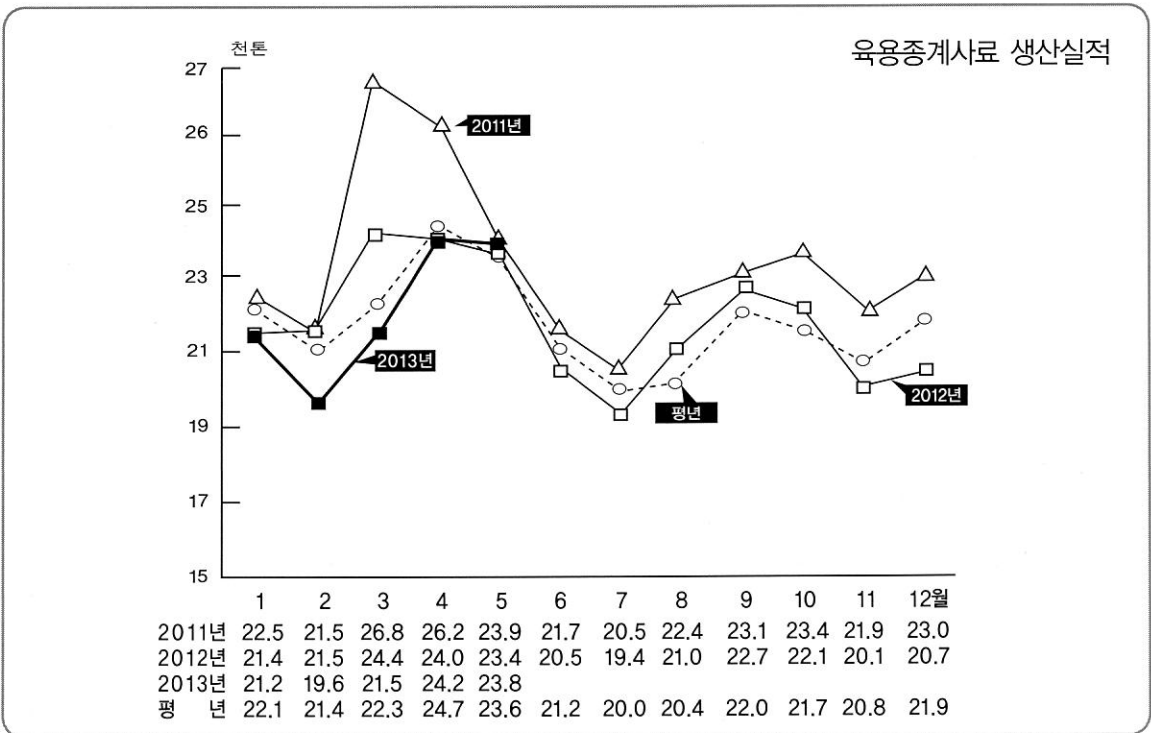
● 7월 사육수수 전년동기보다 증가한 수준 전망

- 7월 닭고기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5월 육용종계사료 생산량은 23,792톤으로 전년동월(23,358톤) 대비 1.9% 증가했으며, 전월(24,215톤) 대비해서는 1.7% 감소했다. 최근 육용종계감축사업 무산으로 종계노계 도태수수가 증가하여 산란계군이 감소한 부분이 있으며 종계에서의 사육성적 및 사료요구율 등이 개선되어 사료섭취량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육용종계사료 생산량은 감소했으나 육계 사육수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5월 육계 배합사료 생산량은 198,709톤으로 전년동월(206,349톤) 대비 3.7% 감소했으며, 전월(177,679톤) 대비해서는 11.8% 증가했다. 6월에는 병아리 발생률이 전년보다 하락 및 병아리 생산 증가와 육계 생산성 소폭 향상으로 육계 사육 마리수가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사료생산량은 증가했다. 또한 생산성 향상으로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전년보다 높아 육계 사육수수는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 평년은 2008~2012년의 생산량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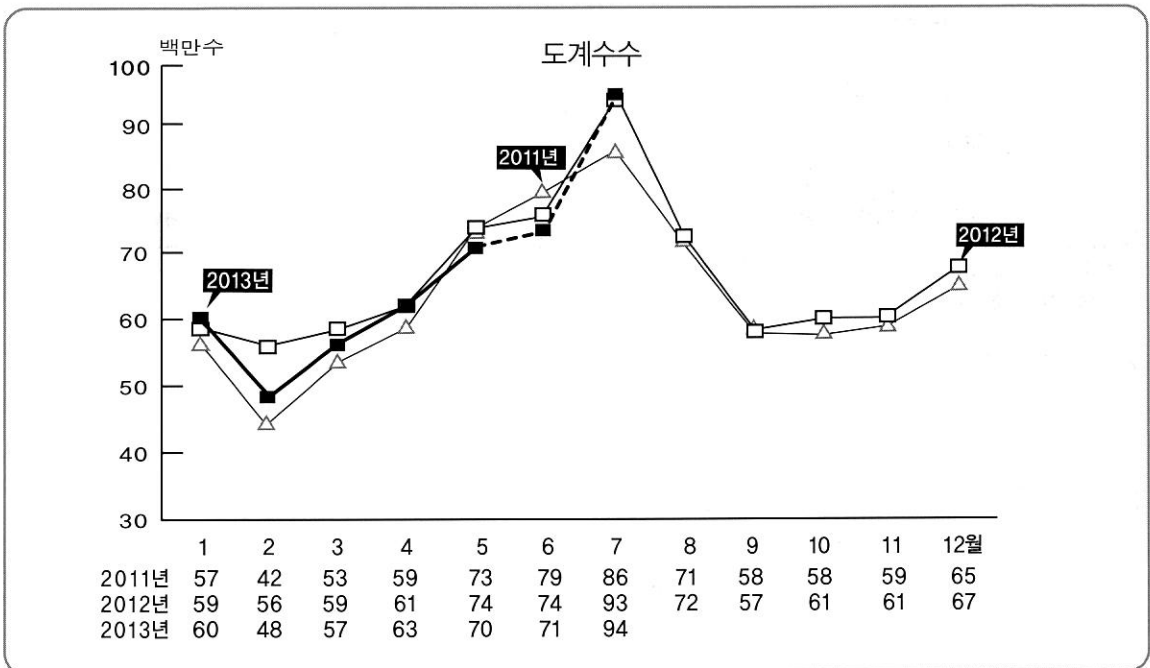
※주 : 평년은 2008~2012년의 생산량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3. 도계수수

● 7월 도계수수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

- 지난 5월의 도계수수는 6,957만수로 전년동월(7,351만수) 대비 5.4% 감소했으며, 전월(6,252만수) 대비 11.3% 증가했다.
- 7월에는 연중 닭고기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로 수요증가가 예상되나 본격적인 장마 시작과 더불어 소비가 위축되고 냉동비축물량 감소와 수입량 감소로 인해 닭고기 수요 증가 요인이 일부 상쇄가 예상되어 도계수수는 6월보다 1.0% 증가한 9,399만수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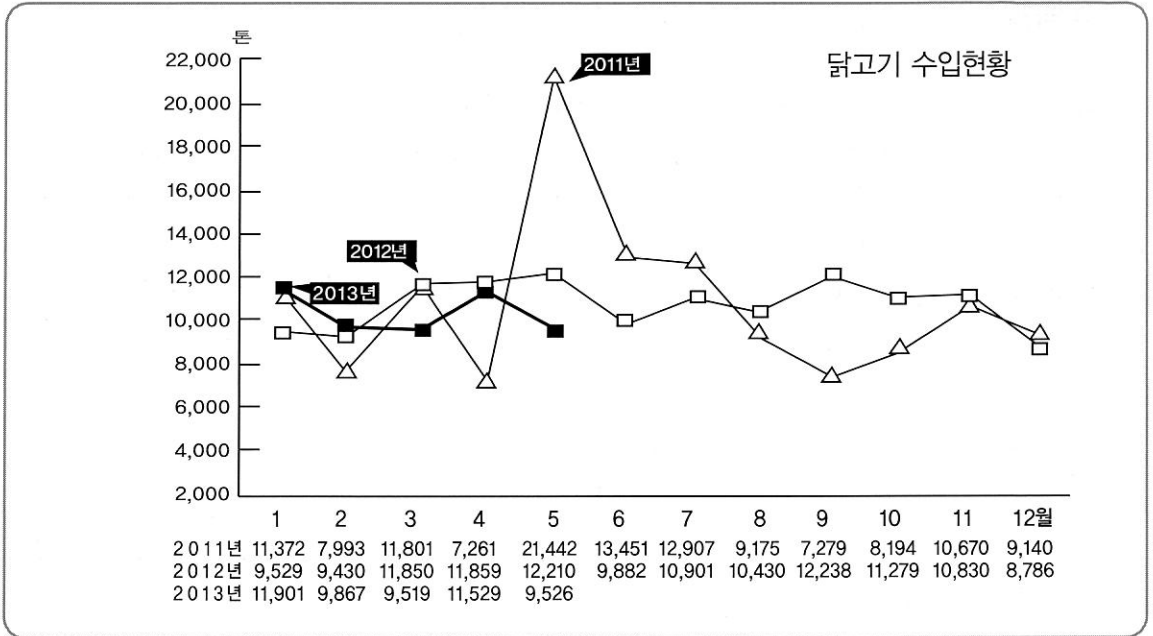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3년 6~7월은 농경연 추정 및 전망치)

4. 닭고기 수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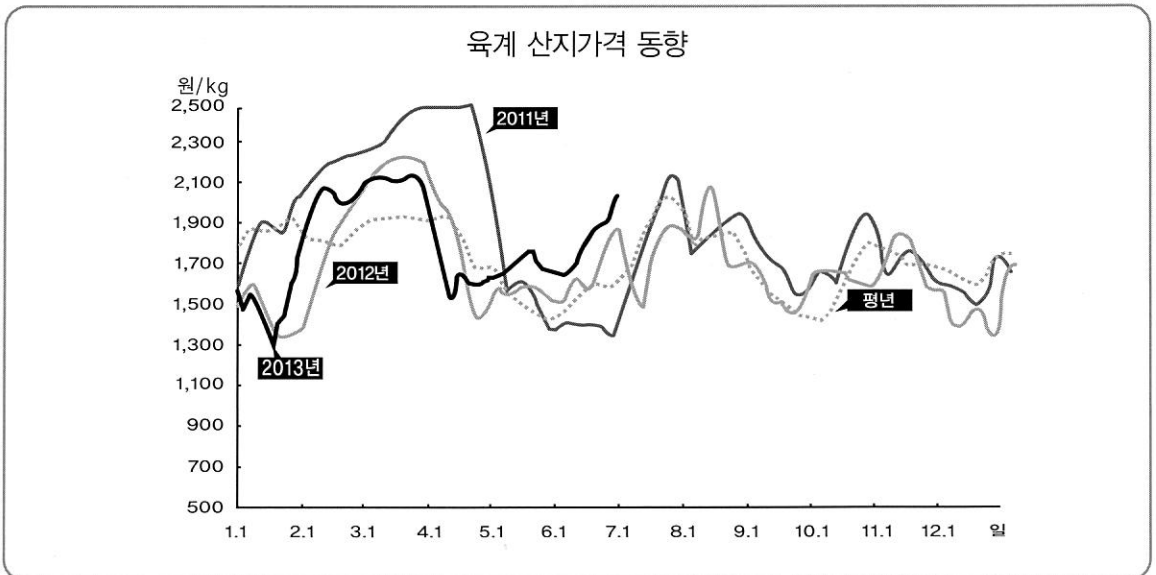
● 6월 닭고기 수입량 전년대비 감소 예상

- 지난 5월에는 9,526톤이 수입되어 전년동월(13,210톤) 대비 27.9% 감소했으며, 전월(11,529톤) 대비해서도 17.4% 감소했다. 검역기준 수입량은 8,313톤으로 전년동월(14,519톤) 대비 42.7% 감소했으며, 전월(6,174톤) 대비해서는 34.6% 증가했다.
- 4대 사회악 중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전방위 정부 합동단속과 기존 수입 닭고기에 대한 소비기피 및 냉동제품 취급기피로 인해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냉동제품 취급기피현상이 심화되어 수입닭고기 판매 저조가 예상되고 국산 닭고기 공급 증가가 예상되면서 수입량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

5. 가격동향



※주 : 평년은 2008~2012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 농협, 축산물 가격정보(5일 이동평균가격)

● 7월 육계 산지가격 평균 1,600~1,800원 전망

- 6월초부터 날씨가 따뜻해지고 사육일령이 단축되고 입식 물량 조절이 이루어져 공급량이 감소했고 증체가 더뎠다. 가격이 강보합세를 유지했다. 하순에 마른 장마와 무더위로 인한 소비증가가 있어 가격이 강보합세가 되는 상황이고 최근 5년 대비해서는 강보합세를 보여 6월(1~30일) 평균 육계 산지가격은 1,827원을 나타냈다(전년 6월 1,668원 보다 9.5% 상승, 평년가격 1,670원 보다는 9.4% 상승, 전월 1,734원보다 5.4% 상승).
- 7월의 경우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계절적 수요 증가 기대로 가격은 전년수준으로 예상되며 냉동비축물량과 수입물량도 전년동기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사육 및 도계마리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공급량은 전년수준으로 예상돼 시세는 전년수준인 1,600~1,800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전년 7월 가격은 1,757원, 평년가격은 1,933원).

6. 수급자료

〈육계 및 삼계 입식·비축현황〉

(단위 : 천수)

기간	육계						삼계					
	입식			비축			입식			비축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5.20~5.26	8,910	9,207	103.3%	4,765	4,363	91.6%	3,580	4,870	136.0%	1,942	2,467	127.0%
5.27~6.02	9,239	9,756	105.6%	5,143	4,411	85.8%	4,700	5,478	116.6%	1,945	2,404	123.6%
6.03~6.09	9,840	9,896	100.6%	5,221	4,443	85.1%	5,720	4,823	84.3%	1,930	2,433	126.1%
6.10~6.16	10,172	9,696	95.3%	5,089	4,428	87.0%	6,354	3,487	54.9%	1,586	2,306	145.4%
6.17~6.23	10,036	9,263	92.3%	5,500	4,509	82.0%	5,600	2,723	48.6%	1,637	2,155	131.6%

7. 결론

- 7월에는 연중 최대 성수기인 초복이 있어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나 공급량이 전년수준으로 예상되고 있고 냉동비축물량과 수입물량도 전년동기대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순에 장마가 소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초순에는 약보합세, 중순 이후에는 강보합세를 형성할 것으로 보여 시세는 1,600원~1,800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시세변동요인

구분	생산(공급) 측면	소비(수요) 측면
인상요인	- 수입량 감소	- 여름철 닭고기 수요증가
하락요인	- 사육 및 도계 마리수 증가	-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